



16면

도심속 자연 '도시농업' 지속 확대 추진

전주매일

2022년 9월 8일 목요일 (음 8월 13일)

제309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둔 7일 전주시 교동원광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진지하게 예절교육을 받고 있다.

민선8기 도정 조직개편안 확정

지역활력추진단, 청년정책과로 명칭 변경... 청년정책 강화
20명 이하 부서 대상 자율팀제로... 부서장이 팀장 지경 가능

민선8기 김관영도정의 조직개편안이 확정됐다. 청년정책과의 신설과 20명 이하 부서 대상 자율팀제 등이 주요 변경사항으로 보인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민선8기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조직개편안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7일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조직개편안을 지난 8월 초 발표한 이후 8월 5일부터 25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을 비롯해 도청 각 부서 등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면밀하게 검토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입법예고 후 분청 기구(3실 9국 1본부) 및 정원(5,471명)은 변동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달리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인구 정책을 추진하는 지역활력추진단은 청년정책 강화를 위해 청년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자리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일자리경제국으로 이관했다.

또한 업무 연계를 통한 효율적 도정 운영을 위해 서울본부와 국회 관련 업무는 기획조정실로 이관했으며, 수출·통상 업무는 기업유치 지원실로 이관했다.

특히, 팀제 운영은 통솔범위 및 업무 추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정원 20명 이하 부서를 대상으로 자율팀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율팀제는 기존 팀장급에 대해 인사발령 시 부서에 배치하고, 부서장이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 필요시 자체적으로 팀장을 지정해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실국 및 부서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중앙부처와의 연계성 확보 및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명칭을 변경했다. 경제통상국은 일자리경제국으로, 농축산식품국은 농생명축산식품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합물관리과는 물통합관리과로, 공항철도도로과는 도로공항철도과로, 금융사회경제과는 금융사회경제과로, 농식품산업과는 농생명식품과로 변경했다.



김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이 7일 전북도청 기저실에서 민선8기 조직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제30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시행할 예정이다.

김승구 기획조정실장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였다"며 "앞으로 남은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조직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추석 명절 풍성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주매일 임직원 일동-

연휴로 12일자까지 신문 쉽니다.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한가위 민생현장 속으로

김관영 도지사, 전주 모래내시장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태풍 피해 상황 점검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7일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전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모래내 시장을 방문해 도민들의 애환과 태풍 한남호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하는 현장행정을 펼쳤다. (관련사진 3면)

김 지사는 이날 시장 곳곳을 누비며 시장 이용객들에게 직접 홍보용 장바구니를 일일이 나눠주며 평소에도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달라는 홍보활동에 나섰고 각종 제수용 먹거리, 과일 등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입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고충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모래내시장의 재난 예방 관련 시설 개선사업

추진상황 및 시장의 태풍 예방 조치사항 등을 듣고, 이번 제11호 한남호 태풍으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가 있는지도 직접 시장을 둘러보며 점검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도 시장 상인들과 이용객들에게 방역 마스크를 각각 배포하며,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쓰기, 손소독제 이용 등 방역지침 적극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명절을 앞두고 다가온 태풍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전북도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마음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도민들께서도 전통시장 이용을 통해 한가위의 정을 마음껏 느끼고, 전통시장의 어려움 극복에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김경수기자

도, 추석 연휴 비상 의료방역 대응체계 구축

비상대응상황실·선별진료소·먹는치료제 약국 운영
코로나19 전담치료 337병상·응급이송체계 유지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추석연휴 전라북도의 의료방역대응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추석연휴 코로나19 진료, 진단, 치료에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비상 의료방역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이번 추석은 거리두기가 없는 첫 명절로 도민의 이동량 증가와 외지 친인척 방문 등으로 만남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검사기관 확진자 진료 등 비상의료방역 대응체계를 가동함으로써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신속한 검사·진단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전파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 시군에 코로나19 의료방역대응 15개반을 구성·운영하며, 확진자 발생대응, 코로나19 응급환자 병상배정 및 재택치료 대응 업무를 수

행한다. 또한, 연휴기간에도 호흡기 유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 진단,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128개소를 확충·운영하며, 관련 정보는 도, 시군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인터넷 포털(네이버, 다음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시군의 경우 보건소를 통해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 진료와 응급실에서도 24시간 원스톱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의료상담센터(15개소)와 행정안내센터(15개소)를 연휴 기간에도 중단없이 24시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구분 폐지(8월 1일)이후 보건소에서 추진해 온 60세 이상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모니터링을 지

속적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재택치료 중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와 의료상담센터 등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병상배정반을 통해 응급이송 하달인을 가동해 전담치료병상(337병상) 입원 연계도 빈틈없이 추진한다.

고열, 호흡곤란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내 119에 연락하면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통해 응급실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입원 병상 배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석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거리두기가 없는 첫 명절연휴를 맞아 도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진료, 진단, 치료 등 의료방역대응체계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민들께서도 나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일상 방역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지금까지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진짜 맛집?

리뷰가 아닌 빅데이터로 말한다

Tmap 길안내 데이터, 전주시 1위 음식점은?

음식의 고장 전주·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에서
Tmap 길안내 결과, 1위 음식점은 어디일까?
전주 중화산동 소재 '현대옥본점'입니다.
전주 현지인에게도 1위이고, 외지인에게도 1위입니다.

전주 소재 전국적 명성의
비빔밥 콩나물국밥 순대국밥 칼국수 등 모든 음식점들을 망라하여
그냥 1등이 아닌 월등히 앞선 1등입니다.

Tmap 길안내 데이터, 전라북도 도민이 가장 많이 찾는 현지인 맛집은?

2022. 7. 기준 Tmap 길안내 빅데이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라북도 도민이 가장 많이 찾는 업소는 1위 군산이성당, 2위 현대옥본점이라고."
[자료 출처 : 한국관광공사 / 2022년 8월 자료]

저희 현대옥본점과 전북권 40여 현대옥가맹점은 자만하지 않고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주 현대옥
JEONJU HYUNDAOK
Korean Restaurant Since 1971